

“책 읽으니까 회사의 미래가 보여요”

동양기전과 삼성SDS를 통해 본 독서경영의 효과 <기업의 독서경영 전략 연구> 독서경영 방안 9가지 제시 인재양성과 노사화합에 ‘특효’

독서의 효과가 기업 경영에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재양성과 노사화합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진구 교보문고 주식회사 역량개발서비스사업부장은 최근 <기업의 독서경영 전략 연구>라는 논문에서 특히 사내독서대학과 중장기 독서계획 등 독서경영을 위한 9가지 방안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독서경영에 관한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독서경영 전략 방안을 제시한 정 부장은 “오늘날 기업 경영에서 이는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CEO의 경영철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CEO 자신이 책을 사랑하고 독서인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논문은 독서경영을 도입하고 싶어도 막상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방법을 알지 못하는 기업들에게 좋은 사례를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논문의 내용을 요약·소개한다.

●동양기전

동양기전은 사원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독서를 통한 평생교육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자녀들에게 독서하는 부모의 상을 보여줌으로써 독서의 습관을 자연스럽게 길러주기 위해 1991년 6월 인천 자동차부품사업부에 사내독서대학을 설립하여 서울, 창원 익산사업부로 독서경영을 확대 실시했다.

동양기전의 독서경영은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동양기전은 1991년 6월 8일에 인천 자동차부품사업부에 4년 8학기 이

교보문고 정진구 역량개발서비스사업부장이 제시하는 독서경영 방안

1 독서경영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사내 독서경영 담당부서를 설립하여 부서장을 임명한다. 독서경영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또는 분기별로 목표를 설정하여 독서능력을 향상시킨다.

2 독서경영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독서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독서경영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독서교육 전문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실시하여 독서경영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개개인의 독서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3 필독도서목록을 작성한다

독서자료선정위원회를 조직하고, 사원의 눈높이에 맞는 교양 및 전문서적을 선정하여 필독도서목록을 작성한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추천을 통한 단계별, 분야별 필독도서 목록을 엄선하여 발표한다.

4 독서토론을 실시하고 독서감상문을 쓰고 평가한다

발제된 문제를 중심으로 독서토론을 실시하며 윤번제로 사회를 맡아 진행하며 토론일지를 작성한다. 정해진 목표에 따라 독서감상문을 쓰게 하고 강평위원들이 첨삭지도하고 평가를 받는다.

5 독서활동에 가족과 협력업체를 참여시킨다

회사 내 독서활동에 가족과 협력업체를 참여시켜서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

도록 한다. 독서감상문 쓰기, 사보 기고, 가족독서캠프, 문학축제, 독서한마당, 독서통신교육, 독서대학 등 사내 독서활동에 참여시킨다.

6 독서활동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

평가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평가된 독서활동 평가 종합자료는 시상, 휴가, 이동, 승진, 연봉 등 사원들의 복지에 반영한다.

7 작품집을 제작하여 배포한다

독서 감상문 미치 아이디어, 토론일지, 사보기고문, 독서캠프 등 독서활동에서 발표한 우수한 작품을 축적하여 작품집을 발간하여 배포한다.

8 사내 독서대학을 설립한다

사원 및 가족의 자기계발을 위하여 회사 내에 독서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소정의 과정에 따라 학점을 이수하여야 졸업이 가능하게 한다.

9 사내 도서관을 설립한다

회사 내에 공간을 확보하여 도서관을 설립한다. 정사서가 도서관 운영을 맡아 사원이나 가족들에게 서비스한다. 도서관에는 도서, 서가, 테이블, 컴퓨터, 열람실 등 기본 시설을 갖춘다.

수과정으로 독서대학을 설립했다. 다음해 6월 창원 유압기기사업부에 독서대학을 설립하였고 1995년 6월 독서대학 수료식을 한 후 같은 해 7월에는 본격적으로 독서경영을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1996년 10월 6일에는 한국문인협회에서 시상하는 '가장 문학적인 상' 기업출판부문을 수상하였다. 1997년 1월에는 우수 독후감 모음집을 발간하였고, 동년 5월에는 독서경영 2주년 기념 '독서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였다. 1998년 4월에는 제1회 '가족 독서감상문 대회'를 개최하였고, 2004년 6월 12일에는 제1회 동양기전 독서캠프를 개최하였다. 올해에는 열 번째를 맞는 '동양기전 문학제'를 개최하였다.

독서경영의 전신인 독서대학은 사원과 가족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현장 마련을 위해 설립해 "문학적 자질을 갖춘 시민을 배출하여 민중 사회 건설에 기여함"을 1차 목표로 했다. 독서대학에 입학하게 되면 매월 1회 독서토론에 참석해야 한다. 문화예술활동은 월 1회 연극, 영화, 미술, 음악감상, 역사탐방 후 감상문을 제출하고 해설강의 과정은 월 2회 3시간씩 저자 강의 및 관련분야 교수진의 해설강의를 참석 수강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소설가 이문열, 서울대 김태길 교수, 소설가 이청준 등 유명 강사들이 강사로 참여했다.

독서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은 독서문화 정착과 전 사원이 참여하는 독서제도 운영의 추동력이 되었고 1995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독서경영은 동양기전의 기업문화로 자리잡았다. 정 부장은 "독서경영은 기업 내적인 경영방침이지만 사내 문학제, 한마음 행사 등 각종 행사를 통해 가족단위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사원과 가족을 포함한 동양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더욱 확고히 했고, 대외적으로는 독서경영을 통해 책을 가까이 하는 기업으로 정평이 나 있어 책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만큼 신뢰와 믿음이 가는 '깨끗한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했다.

● 삼성SDS

삼성SDS가 꿈꾸는 미래는 아예 "나부터 책을 읽자, 우리 가족, 친구부터 독서에 동참시키자. 책을 가까이 하는 문화를 일구는 데 우리가 먼저 앞장서자. 그리하여 모두 행복하고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자"이다.


삼성SDS 독서경영의 특징은 윤독 모임에 있다. 대표적인 것이 SDS 경영연구회로 2003년 9월 18일 인사, 재무, 기획 및 지식경영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 26명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연구모임이다. 이회는 회사 내 경영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것은 물론 경영 관련 책을 읽으며 사내 독서문화를 이끌고 있다. 전략, 재무, 인사, 지식경영 4개 분과로 나누어 매월 2회씩 모임을 갖는다.

윤독 모임을 이끌고 있는 최윤석 부장은 "독서는 자기 계발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이다. 독서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이끌어 내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 인생의 폭을 넓힐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연구회의 김희강 상무는 "독서는 인생관 및 직업관을 확립할 수 있음은 물론, 질 높은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독서 토론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 의식 및 부서 공동의 목표 추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SDS는 전자사보 <사람@꿈>을 독서문화 확산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사장 및 임원들이 추천하는 도서를 소개하고, '자유문예'를 통해 직원들의 다양한 글쓰기를 선보이며, 연중 독서 감상문 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수상작을 실음으로써 임직원 및 가족들의 독서의욕을 유도하고 있다.

삼성SDS 독서바람의 주역은 김인 사장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독서예찬론자인 김인 사장은 매주 임직원들에게 발송하는 'CEO의 월요편지'를 통해 《활력과 도전정신의 조직문화》《코끼리를 춤추게 하라》《물고기처럼》등을 추천해 독서문화를 일으키는 데 앞장서고 있고, 지인들에게 일 년에 두 차례씩 책을 선물한다. 지난 상반기에는 《극기 운동 530》《걷는 인간 죽어도 안 걷는 인간》등을 선물했다. 뿐만 아니라 매월 25일을 책 선물하는 날로 정하고, '자녀와 함께 30분 책읽기 운동'에 회원사로 가입해 임직원들의 독서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사내 "한 달에 한 번 독서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가족 독서 신문을 만듭시다!"를 모토로 '가족 독서 신문 콘테스트'를 전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김인 사장은 "독서는 합리적인 사고 형성은 물론, 전인교육을 통한 주인의식 함양으로 사내 토론 문화 활성화 및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에도 한몫하는 등 기업 경영에 큰 역할을 한다"며 "책읽기 문화를 기업문화의 하나로 확대하고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구 부장은 "독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매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자기학습법 가운데 한가지이다"며 "어떤 조직이 독서를 개인 활동의 수준을 넘어서서 조직활동 차원으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면, 조직은 독서활동에 의하여 매우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독서활동은 기업 경영전략의 뉴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신동섭 기자